

전남도 환경친화형 축산 모델 육성

동물복지형 농장 2022년까지 1천곳으로 확대 사육 밀도 등 22개 항목 평가...운영자금 지원

전남도가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등 환경 친화형 축산 모델 육성에 나선다.

전남도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2022년까지 1,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비용 지원 37억 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사업 20억 원,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 20억 원, 친환경해충퇴치 장비 지원 6억 원, 친환경 전적 이용 해충구제 지원 5억 원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여유 있는 사육 공간, 가축 운동장 확보, 축사 악취 관리, 농장 경관 조성 등 동물복지 사육 및 위생적 사양관리를 통해 기존

행축산과 차별화를 뒤 운영하는 축산구조다.

정부 동물복지 인증 제도의 정경다리 단계로 전남도에서만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5월 말 현재까지 143호가 지정됐다. 축종별로는 한우 69호, 젓소 6호, 돼지 16호, 육계 15호, 산란계 20호, 오리 7호, 염소 10호 등이다.

심사 절차는 서류 심사와 현장심사 2 단계로 진행된다. 현장심사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농가에 대해 실시한다. 도와 시군 담당자,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해 가축 사육 밀도, 가축 운동장 확보 여부, 축사 청결 상태 등 22개 항목을 평가한

다. 함께 200점 가운데 160점 이상을 획득하면 적합 판정이 내려진다.

지정 농가에는 농장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농가당 운영자금 300만 원을 지원하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각종 축산정책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 자격이 주어진다.

배운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 생태에 적합한 여건 조성 및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많은 축산 농가의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근산 기자

위생 불량 광주 김치타운, 학교 납품업체 탈락

김점기 시의원 “광주시, 위생관리 제대로 못 해”

광주김치타운에서 만든 김치가 위생 불량 판정을 받아 학교 납품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광주시의회 김점기(남구2)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운영하는 광주김치타운 내 김치공장이 올해 광주시교육청의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위생 부분 0점을 받고 탈락했다. 시교육청은 학생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해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에는 신청한 11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를 선정하고 친환경 쌀, 잡곡, 고춧가루, 김치를 학교에 납품하도록 했다.

탈락 업체에는 김치타운에서 김치를 생산하는 김치공장이 포함됐다. 김치타운 김치공장은 위생 시설 보수 공사를 하지



않아 녹슬발생, 곰팡이 발견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시설 구비, 보관 기준에 적합한 냉장·냉동 시설 구비 여부 등 위생 부분 10개 항목에서 1개 항목이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공급업체에 선정될 수 없다.

김점기 의원은 “광주시가 11대 대표산업에 김치 산업을 선정했는데 정작 김치 산업을 선도해야 할 김치타운 김치공장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광주 학생에게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김치를 전국화, 세계화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애란 기자

원산지 표시위반·무신고 영업 등 적발

시, 4개소 입건·행정조치

광주시는 광주수영대회 개최를 앞두고 식품사고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난 9일부터 5일까지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위반 등 4개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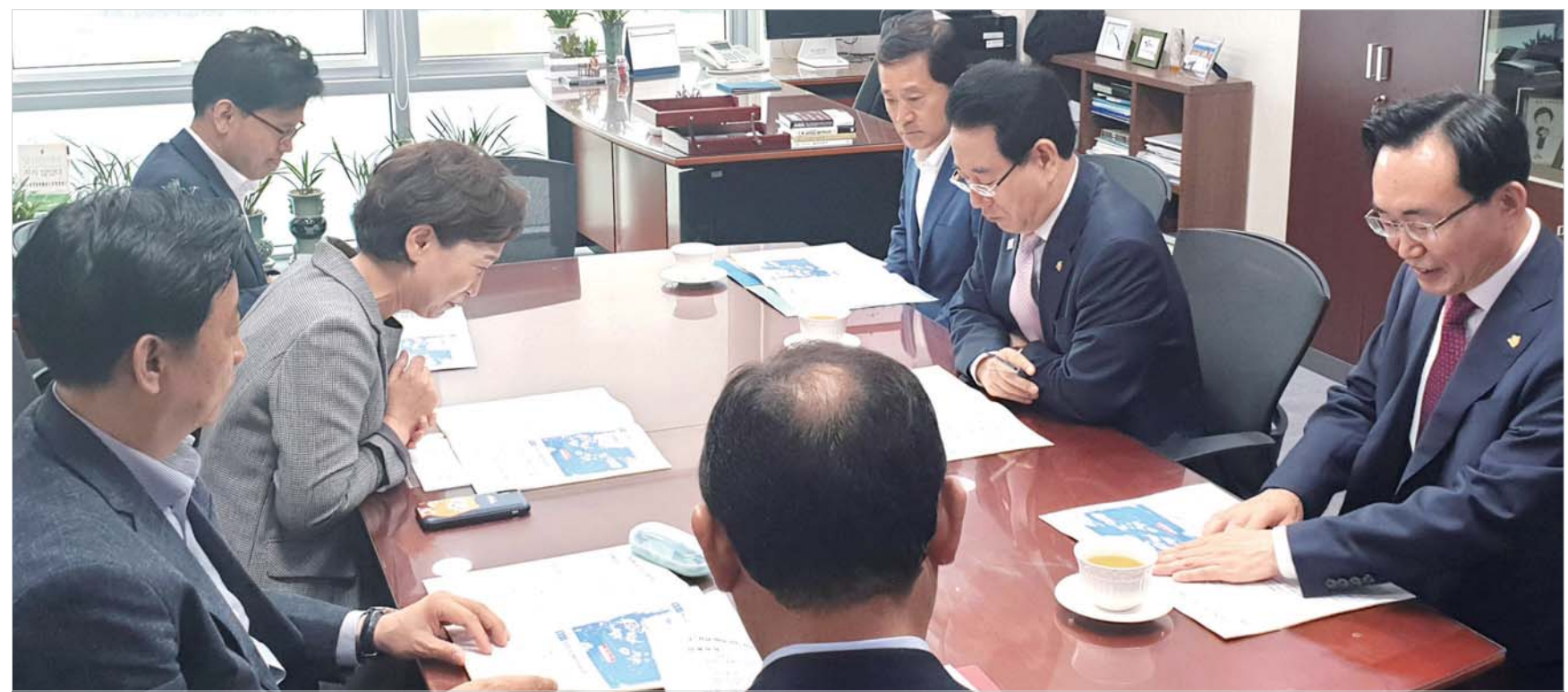
이번 수사는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과 수사는 농·수·축산물 취급업소에서 상품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제조·가공·접객업소에서 판매하는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에 중점을 뒀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접객업소(도시락류 통체인점 등) 2개소는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품 제조·가공업소 1개소는 원료 수불부(임출고량과 재고량 등을 기재하는 표)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과자류제조업 1개소는 관할행정청에 영업신고하지 않은 채 무신고로 마카롱 등 디저트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번 단속 및 수사결과에 따라 4개소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업소 대표자 등을 불러 위법 과정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당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 SOC 현안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 국토부 장관에 지역 SOC 현안 건의

경전선 전철화·훈련용 항공기 전용 비행장 등 지원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 SOC 현안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현미 장관에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균형발전이 지원되도록 전남 핵심 SOC 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비롯해 ▲경전선(광주 송정-순

천) 전철화 사업 ▲암해-화원(달리도-화원 구간) 해상교량으로 변경 ▲훈련용 항공기 전용 비행장 건설 국가 지원 등 지역 SOC 분야 현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각 부처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역 기반시설 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 국토부에 건의한 SOC 사업은 전남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역에서 필요한 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지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삶의 질 개선

시, 3개 분야 16개 과제 선정 주거복지 실현

광주시가 영구임대주택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등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광주시는 영구임대주택 공실 해소 및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1만5,370호(도시공사 4,700호, LH공사 1만670호)다.

이중 1만3,920호(90.6%)가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다.

또 주거전용면적 24~26㎡의 초소형 위주로 공급돼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생활이 불편해 입주를 기피

하면서 공실은 2016년 59호에서 지난해 179호로 증가했다.

이에 시는 수요자 맞춤형 영구임대주택을 공급기로 하고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시설개선’,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법제도 개선’ 등 3개 분야 16개 중장기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맞춤형 시설개선을 위해 비좁은 두 세대대의 벽을 허물어 주거공간을 넓히는 ‘세대벽 철거 리모델링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공용부분인 무장애 시설 개선과 노후시설 기능 향상, 하남시영아파트 베란다 문턱 제거 등은 시비를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주거복지

민관커뮤니티’를 구축해 공적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 분야는 지난해부터 공실 해소와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실제대 입주자격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는 도시공사와 LH공사, 지역사회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입주자 의견을 듣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시, 자치구 도로조명 개선 예산지원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도로조명 시설 개선을 위한 추경예산 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25% 확대한 40억원을 도로조명 시설 개선 예산으로 지원한 것

에 이어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추가한 것이다.

시는 이번이 확보된 예산으로 노후가로등 및 주택가 골목길 보안등의 점등 불량 개소 정비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조명 시설 전반에 걸쳐 정비할 계획이다. 노후된 주택가 보안등으로 야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고 함께 주택가 골목에 설치된 오래된 보안등을 효율이 높고 밝기가 우수한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한편, 시는 고장난 꺼진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신고(062-613-4740-3)도 받고 있다. /황애란 기자

지역특산물 농수산물을 애용합시다

! 농수산물 애용 캠페인 !

기원품 소평물
신선하고 소박하게 함께 먹는 소평물. 단맛과 감칠맛이 가득한 소평물을 즐겨주세요.

정남진 장흥 한우
정남진 장흥한우는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사육되며 청정한 공기를 마시고 최고 품질의 초지에서 건강한 자연의 맛을 즐기며 사육됩니다.

정남진 트로시장 장흥만우
정남진트로시장은 061) 864-7002

정해연 · 활천복제 · 천복가공제품 (파우치/통조림/냉동/건조/저속건조)

www.wakorea.kr

안도전복주식회사 WandoAbalone Co., Ltd. 카카오톡 ID: @안도전복주식회사

꽃음품은 무화과

추천 >> M 전남매일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